



## ESCO를 위한 창조적 파괴



**임춘** (立春)이 지났는데도 시샘하듯 바람이 매서운 것은 비단 사람의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원의 나목(裸木)들도 마른 잎 하나를 깃발처럼 매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이 매우 당당해 보입니다. 겨울의 한 가운데를 관통해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경외감이 멀지 않았을 봄에 대한 기대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나 봅니다. 음력설이 지나고 비로소 새로운 한해를 맞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습입니다. ESCO인 모두의 가정과 회사에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설렘이 있어 즐겁습니다.

오늘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학자 슈페터로부터 비롯된 이 말은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없다면 기업이란 사람이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의 ESCO자금이 1,23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투자사업을 영위하는 ESCO는 먼저 이 자기에 기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업활동을 펼칩니다. 올해부터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자체투자자금을 제외한다면 160여개의 등록 ESCO는 전적으로 ESCO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ESCO의 시장규모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기업들은 에너지절약에 총 5,1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업체당 28억9천만원, 중소기업이 업체당 2억4천만원입니다. 기업들은 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조달 75.4%, 정부용자자금과 자체조달 병행 18.5%, 정부용자자금 활용

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ESCO자금을 제하면 3,867억원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보입니다. 신기술 도입, 다양한 금융기법의 개발 등 ESCO들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기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창조적 파괴란 ‘무조건 판을 같이엮고 보자’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모두 알고 있지요. 흔히들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 창조적 파괴의 범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지원금의 규모를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화, 사업당 자금지원비율의 축소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의 지속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환경요인들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ESCO자금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100% 혹은 200% 자금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ESCO사업의 붐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ESCO만한 정책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냉철한 시선으로 ESCO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창조적 파괴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